AI를 활용한 나만의 접시 만들기 프로젝트



AI

AI Plate Project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AI 플레이트 프로젝트

가능성의 경계를 넘어 세상과 만나다

나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창작의 기회일까요?"
기존 창작활동의 한계에서 고민을 시작하다.



다섯가지 선택으로 시작된 특별한 도전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도구를 조작하기 어려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을까?
작은 선택이지만 하나의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다.



AI로 '나만의 접시만들기' 디자인요소 프롬프트 제작

- AI를 활용하여 접시에 사용될 패턴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작
-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하여 기능 수준이 낮은 이용인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의 가지수를 최소화
- 스스로 선택한 요소를 통해 자신만의 창작 작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5가지 요소로 만든 AI 접시사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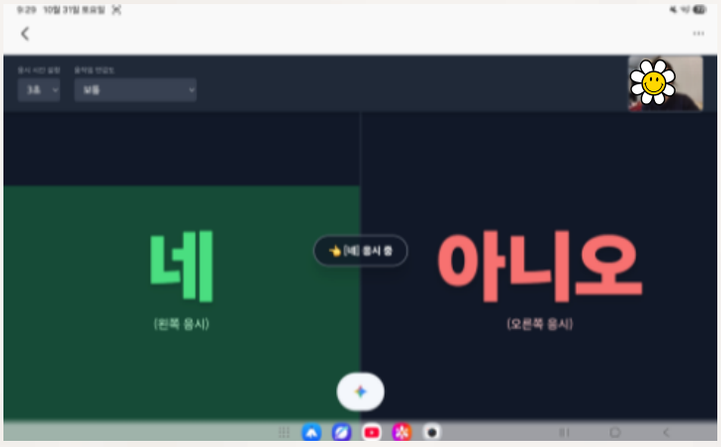
작은 시선도 소중한 선택이 되도록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용인의 선택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AI를 사용하여 시선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다

작은 시선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언어적 표현의 제한이 많다.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용인이 작은 시선의 움직임도 하나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로 시선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예' '아니오' 두가지 물음에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하다

태블릿 카메라를 활용하여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응시하는 시간을 개인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 , '아니오' 중 어느 선택지를 고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접시 디자인 만들기 프롬프트에 필요한 5가지 요소를 그림카드로 만들어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용인도 시선 움직임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창작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선택이 작품이 되는 과정

각각의 선택은 하나의 작품으로 이어졌고,
각자의 개성이 담긴 나만의 접시가 완성되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

"AI가 창작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작품으로 연결되도록"





선택한 요소를 프롬프트로 작성하여 이미지파일 생성하기



5가지 요소 선택



프롬프트 작성



이미지파일 생성

이미지파일을 전사지에 인쇄하여 실제 접시 제작 의뢰하기



접시에 전사지 부착



실물 접시 완성

작품이 세상과 만나다

완성된 작품은 실제 전시 공간을 만들어 외부 관람객에게 공개하였고,
AI를 활용하여 3D VR 온라인 가상전시관을 만들어 장소의 제약없이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다.

오프라인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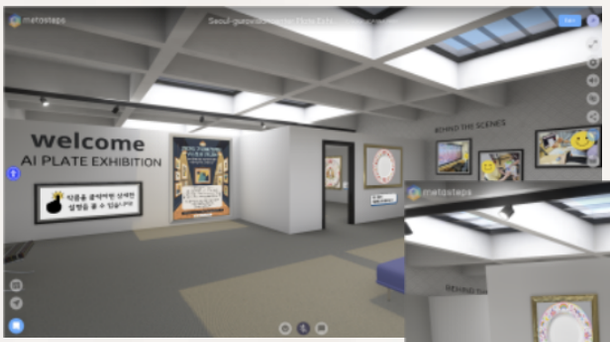







온라인 3D VR 가상 전시관

metasteps






가상전시관 홈페이지 : HTTPS://METASTEPS.COM/VIEWER/CF9232CB-51F9-452B-9434-135B64083559

무엇이 달라졌을까?



AI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도구를 넘어 신체적 제약으로 어려웠던 창작의 기회를 넓혔다.
이용인의 작은 선택이 자기표현으로 이어지고
완성된 작품은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었다.



자기 결정

'나의 선택이 반영되다'
이용인이 직접 창작 요소를 선택



자기 표현

'나의 생각이 작품이 되다'
선택한 요소를 AI를 활용하여
작품으로 구현

AI



창작 기회 확대

'새로운 창작의 문이 열리다'
신체적, 언어적 제약을 고려한
새로운 창작 방식 적용



사회 참여

'나의 작품이 세상과 만나다'
오프라인, 온라인 전시를 통해
작품을 공개하여 창작의 경험을
사회참여 기회로 확장

기술이 사람의 가능성으로

AI는 누군가에겐 불가능해보였던 현실을
실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고리

